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김진모* · 최수정* · 남중수* · 진영욱* · 오진주* · 유영주* · 김선근*

서울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의 추가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방체제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 수요를 실제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제적 수요는 중등단계 교육체제 안에서 직업교육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학생 들로써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진학하지 못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1학년 및 2학년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직업훈련 위탁과정 희망자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잠재적 수요는 사회체계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및 4년제 대학 으로 진학하였으나 취업단계에서 하향 취업한 학생으로 볼 수 있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 를 특성화고 입학 정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학생 수요는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31.7%, 실제적 학생 수요는 29.5%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1) 교신저자: 남중수(xoxzone2@snu.ac.kr)

2) 이 논문은 2013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B8A02057041).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인의 직업세계로의 진입과 성공에 있어서 학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 개인을 판단하는 데 능력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박윤희·허영준·오계택, 2013). 지금까지 한 개인을 판단하는 데 능력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1970년 26.9%에서 2008년 83.8%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70.8%로 OECD 주요 선진국 평균인 4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인적 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0.5% 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류지성 외, 2012).

학력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공교육의 부실화, 조기유학의 증가, 지역교육의 황폐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악영향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대학진학이 일반화되어 노동시장에서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높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고용노동부(2015)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까지 대학 졸업자 321천명, 전문대학 졸업자 471천명이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는 급속히 증가해 온 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이들 학력 수준의 일자리 수요는 공급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숙련수급상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9.5%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는 전체 실업률 3.7%의 2.5배를 넘는 수치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다면 청년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취업하는 ‘하향 취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정보원(2012)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자 비율을 2007년 12.3%에서 2011년 1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자 비율도 2007년 21.1%에서 2011년 2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하향취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적자원의 저활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혹은 국가적 투자를 통해 양성한 인력이 그 능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곳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신선미·손유미, 2008). 류지성 외(2012)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약 1억 2천만 원, 전문대학 졸업자는 약 5천만 원이며, 신선미·손유미(2008)의 논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과잉학력 비율을 대학졸업자의 42%로 설정했을 때, 이들이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 활동을 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p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학력보다는 능력’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성공의 출발점이자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다(정윤경, 2015). 우리사회가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고찰해야 한다. 지식 산업사회의 인재상과 동떨어진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정책, 사람들의 학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그로 인한 처우 문제 등 많은 사안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도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직업 교육은 이념과 목적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과 다를 바 없으나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개발과 필요한 기술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는 만큼 특색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직업 교육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직업 교육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 관련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강무섭, 1983). 즉, 직업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과 직업을 준비하는 학습자가 유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현명한 진로선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이무근, 2003).

직업 교육에 관련된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 체계를 둘러싼 제반 사회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시대와 그 사회의 요구에 맞게 직업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직업 교육의 목표가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강무섭, 1983).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 학력과잉에 따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및 하향취업 등의 현상은 중등단계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 및 비중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이나 잠재적으로 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으로의 진입을 희망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전입학자,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희망자 등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제적 추가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성적인 하향취업에 대해서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잠재적인 수요인 만큼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실제적 관점과 잠재적 관점에서 지난 5년간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추가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

1.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 변화

직업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직업인이 되게 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직업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중등단계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기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5년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319,523명, 학교 수는 594개교로 1970년에 비해 학생 수는 44,508명, 학교 수는 113개교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 학생 수 810,651명에 비해 학생 수는 39.4%, 2000년 학교 수 764개교에 비해 학교 수는 7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고등학교 수 및 학생 수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 수 및 학생 수는 2000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970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해당 비율이 학생 수 46.6%에서 18.5%로, 학교 수 54.1%에서 25.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참조).

<표 II-1> 연도별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학생 수 및 학교 수 비교

단위: 명, 개교, (%)

연도	학생 수			학교 수		
	직업계	일반계	합계	직업계	일반계	합계
1970	275,015 (46.6)	315,367 (53.4)	590,382 (100.0)	481 (54.1)	408 (45.9)	889 (100.0)
1980	764,187 (45.0)	932,605 (55.0)	1,696,792 (100.0)	605 (44.7)	748 (55.3)	1,353 (100.0)
1990	810,651 (35.5)	1,473,155 (64.5)	2,283,806 (100.0)	587 (34.9)	1,096 (65.1)	1,683 (100.0)
2000	746,986 (36.1)	1,324,482 (63.9)	2,071,468 (100.0)	764 (39.0)	1,193 (61.0)	1,957 (100.0)
2010	466,129 (23.8)	1,496,227 (76.2)	1,962,356 (100.0)	692 (30.7)	1,561 (69.3)	2,253 (100.0)
2015	319,523 (18.5)	1,278,008 (71.5)	1,788,266 (100.0)	594 (25.3)	1,751 (74.7)	2,345 (100.0)

자료: 교육통계연보(1990-2015).

또한 연도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면, 1990년까지 10% 내외였던 진학률은 2000년에는 42.0%였고 2010년에는 71.1%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진학률은 2000년에는 51.4%였으나 2010년

에는 19.1%까지 급감하였다(<표 II-2> 참조). 1990년 중반까지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체 현장에서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축으로 중국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1996년 발표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계기로 중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교육의 성격이 전환된 결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전체 졸업자 수 118,255명 중 진학자 수가 43,285명으로 36.6%이며, 취업자 수는 54,021명으로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 참조).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온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폭 축소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예화하여 해당 학교들을 취업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책적 활동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90% 이상을 보였다(교육부, 2015).

<표 II-2> 연도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을 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전체 졸업자 수	진학	취업
1970	62,854	6,033 (9.6)	31,569 (50.2)
1980	201,057	23,019 (11.4)	102,812 (51.1)
1990	274,150	22,710 (8.3)	210,113 (76.6)
2000	291,047	122,170 (42.0)	149,543 (51.4)
2010	156,069	111,041 (71.1)	29,916 (19.1)
2015	118,255	43,285 (36.6)	54,021 (46.6)

주: (~ '10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 × 100
 ('11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입대자) × 100
 ('15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입대자 + 제외인정자)] × 100
 자료: 교육통계연보(1990-2015).

2.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

국내 중등단계 직업교육 및 관련 정책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무근(2003)은 산업화 과정에 따라, 수공업시대(1945-1960), 노동집약시대(1961-1970년대 초반), 기술집약시대(1970년대 중반-1980년대), 지식산업시대(1990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송창용 외(2009)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체제 육성(1960-1970년대 초반),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1970년대 중반-1980년대), 직업교육 확충 정책(1990년대 초), 계속교육으로의 전환(1990년대 중반 이후)으로 분류하였다. 배상훈 외(2013)는 역대정부의 직업교육 기조와 정책

변화를 ‘직업교육연구’ 동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김영삼 정부(1995-1998년), 김대중 정부(1999-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임언 외(2015)는 2차부터 7차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각 연대별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1960년대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당시 직업교육은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교육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직업교육정책의 방향이 정해졌는데 특히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이무근, 2003). 1962년부터 시작된 제1, 2차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계열이 명료화되었으며(임언 외, 2015), 1958년 의결된 ‘직업교육진흥법안’을 모체로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직업교육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에는 3, 4차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라 3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기능인력 정예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실업 교육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보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이념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안정과 형평을 강조하여 교육정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정책 지원이 격감하였다. 즉, 4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서 다기능공 양성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만 상대적으로 뚜렷한 직업교육정책이 부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최규남, 2003).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부족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시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이무근, 2003).

1990년대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방향이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1990년 중반까지 직업교육은 산업체 현장에서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축으로 종국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지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계기로 종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졌으며(송창용·민주홍·성양경, 2009), 이로 인해 관련 학과로의 대학진학 기회가 확충되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최동선·이중범, 2013). 직업교육의 중심교육기관이 중등단계(고교단계)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은 정책 목표를 양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하였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제시된 정책들은 직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태도 및 자세, 기능 등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역점을 두었고,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여 졸업한 후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배상훈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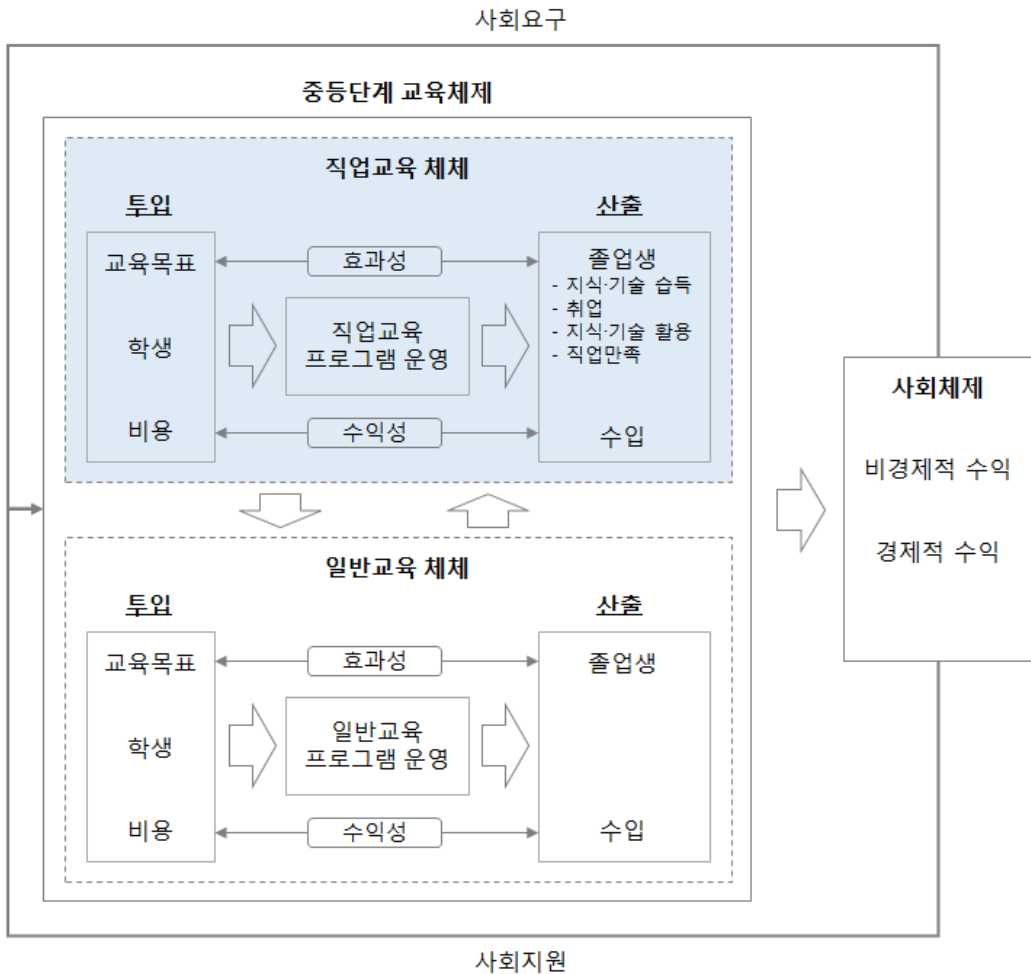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에는 점차 규모가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1998-2003년)는 고졸 수준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중견 및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의 특성화고인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육성 방안을 통해 공업계고의 신설을 억제하고 특성화고 등으로의 전환을 적극 꾀하였다(송창용·민주홍·성양경, 2009).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국가 수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교육비전을 수립하고자 하여 ‘일·학습·삶이 하나되는 교육’ 비전을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직능 지향의 열린 교육체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행’을 내용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참여를 통한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을 추진하였다(배상훈 외, 2013).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전문계고를 대폭 축소하고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로 정제화 하여 해당 학교들을 취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배상훈·장환영·오세희·장창성·이태희, 2013), 이 정책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예산,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기관이 다양화 되었다(장명희·김종우·민상기, 2010).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업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 능력중심 채용, 직업정보 연계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중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다시 중국교육으로 방향이 변화하였고, 장기적인 산업인력 양성계획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교육목적 및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육적 요구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그 결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이전 정권과는 다른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폭 축소하였는데, 불과 몇 년 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하였다. 따라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Ⅲ.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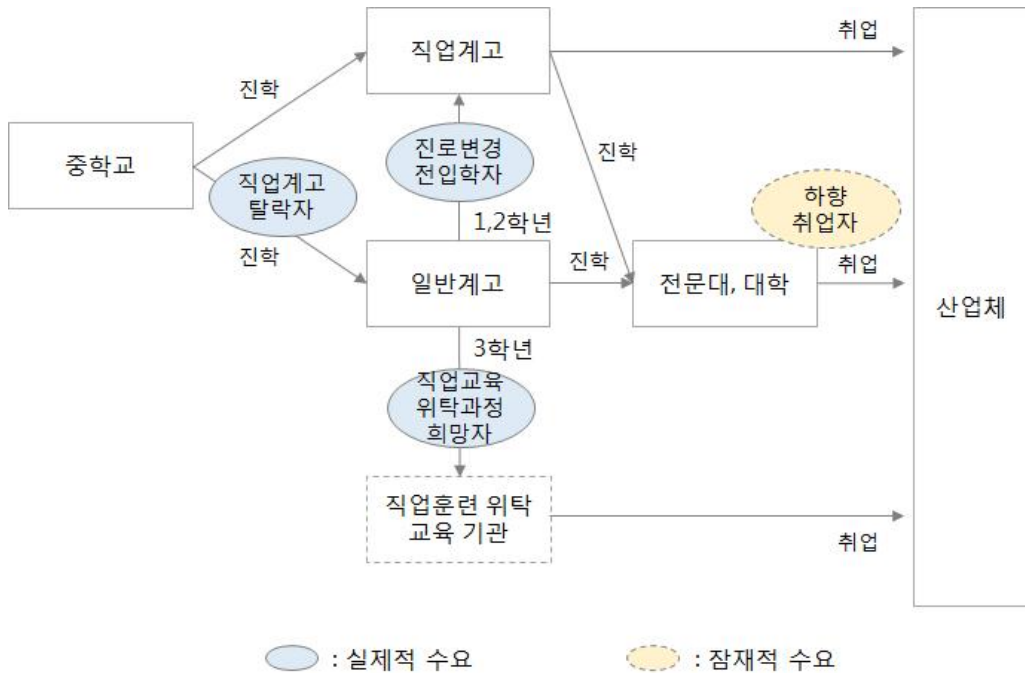
직업교육은 공교육 체제에서 일반교육과 함께 전체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무근, 2003). 직업교육 체제는 사회로부터 물질, 인적 자원을 투입받게 되며, 체제의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을 사회에 내보내게 된다. 개방체제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일반교육 체제와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교육체제의 목표를 수행하게 된다([그림 III-1] 참조).



[그림 Ⅲ-1] 개방체제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주: 강무섭(1983)이 제시한 개념을 변형하여 제시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 수요는 실제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 추가 수요는 중등단계 교육체제 안에서 직업교육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학생들로서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진학하지 못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1학년 및 2학년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직업훈련 위탁과정 희망자 등으로 볼 수 있다. 잠재적 추가 수요는 사회체제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및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나 취업단계에서 하향 취업한 학생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Ⅲ-2] 참조).



[그림 III-2]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실제적 잠재적 추가 수요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데이터 수로 인해 시계열분석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 수요를 파악하였다.

1.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제적 추가 수요

첫 번째 실제적 수요는 직업계 고등학교 탈락자이다. 이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있었으나 학교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탈락한 학생을 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중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고교 구분상 특목고에 해당되며 특성화 및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먼저 신입생 모집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탈락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 수요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를 정원 이상으로 지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 정원 이상으로 지원한 경우 그 초과분이 추가적인 수요이지만 정원 이하로 지원한 경우에는 수요가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정원미달인 학생 수를 감하여 산정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와 미달자 수를 반영한 실제적 수요를 보면, 2011년 13,179명으로 입학정원의

1) 종합고등학교 탈락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실제적 수요로 고려할 수 있으나, 활용 가능한 자료에서 입학정원 및 탈락자를 직업반과 일반계고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 탈락자의 대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라고 할 수 있다.

11.2%였으나, 2015년에는 15,227명으로 입학정원의 15.1%로 인원수와 비중에서 모두 높아졌다(<표 III-1> 참조).

<표 III-3> 특성화고 탈락자, 미달자 및 실제적 수요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성화고 입학정원	118,137	113,541	108,156	105,605	101,102
탈락자 수(A)	15,428 (13.1)	16,689 (14.7)	16,765 (15.5)	13,905 (13.2)	18,204 (18.0)
미달자 수(B)	2,249 (1.9)	2,547 (2.2)	1,605 (1.5)	2,977 (2.8)	2,977 (2.9)
실제적 수요(A-B)	13,179 (11.2)	14,142 (12.5)	15,160 (14.0)	10,928 (10.3)	15,227 (15.1)

주: (%)는 특성화고 입학정원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교육통계연보(2011-2015). 내용 재구성.

두 번째 실제적 수요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자이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고교 1학년 및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나 방송통신고교로, 또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고교로 학적을 옮기는 제도이다. 2011년 대전시교육청에서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 중이다(내일신문, 2015).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전입하는 학생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등학교로 전입학 하는 학생들은 입학전형 결과 일반계고로 진학하였으나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이들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로 고려할 수 있다. 전국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수는 2011년 2,246명, 2012년 1,803명, 2013년 1,987명, 2014년 1,522명, 2015년 1,461명이었다(<표 III-2> 참조). 일반고 학생의 약 0.2%가 매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하였다²⁾³⁾.

2) 진로변경 전입학제 희망학생의 80% 정도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의 전입학 희망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임(내일신문, 2015. 06. 02)

3) 고등학교 1학년 진로변경 전입학자와 특성화고 탈락자가 중복될 수도 있다. 특성화고에 탈락하여 일반고로 진학했는데, 그해 특성화고로 진로를 변경하여 전입학을 한 경우이다. 그런데 일반고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와 일반고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자 간의 중복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없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가 18,204명인 반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입학한 일반고 학생은 1, 2학년 합쳐서 1,461명이다. 중복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 추가 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표 III-4> 진로변경 전입학자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고 학생 수	1학년(A)	487,933	462,716	451,951	429,905	416,771
	2학년(B)	495,375	464,250	448,747	441,424	423,261
	(A) + (B)	983,308	926,966	900,698	871,329	840,032
진로변경 전입학자 (일반계고 → 직업계고)		2,246 (0.2)	1,803 (0.2)	1,987 (0.2)	1,522 (0.2)	1,461 (0.2)

주: (%)는 해당연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수 대비 비율임.
 자료: 내일신문 보도자료. (2015.06.02.). ‘진로변경 전입학’ 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
 한국교육개발원(2011-2015). 교육통계연보.

세 번째 실제적 수요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1년 과정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인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및 고용부 지원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희망자는 2011년 8,990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1.8%였으나, 2015년에는 13,127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3.0%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표 III-3> 참조).

<표 III-5>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고 3학년 학생 수	489,891	489,056	455,372	442,744	437,976
일반고 내 위탁과정 희망자 수	8,990 (1.8)	10,274 (2.0)	11,057 (2.4)	11,856 (2.7)	13,127 (3.0)

주: (%)는 일반고 3학년 학생 수 대비 비율임.
 자료: 내일신문 보도자료. (2015.03.02.). ‘진로변경 전입학’ 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
 한국교육개발원(2011-2015). 교육통계연보.

2. 대졸 하향취업자를 통해 추정된 고졸인력 수요

대학졸업자 중 하향취업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고졸 수준의 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력괴양 및 고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대졸자가 대체한 자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졸 하향취업자의 수를 통해 고졸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잠재적 인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중등단계 직업교육 잠재적 학생 수요로도 고려할 수 있다.

대졸자의 하향취업 비율은 다른 선행연구들(예: 김주섭(2005), 박천수(2004), 박지선·권대식(2005), 오호영(2005), 신선미·손유미(2008))에 비해 지속적으로 조사된 한국고용정보원(2012)의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12)에서 조사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하향취업 비율의 평균값을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 비율로 산정하였다⁴⁾. 한국고용정보원(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학력별 하향취업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28.9%, 4년제 대학 졸업자의 1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하향취업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23.9%, 4년제 대학 졸업자의 12.6%이었다⁵⁾.

한편, 중등단계 직업교육 수요를 증폭하여 추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등단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 뒤 잠재수요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대학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 비율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 간 특성화고 졸업자 중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의 평균은 전문대학이 27.0%, 4년제 대학교가 7.3%였다(<표 III-4> 참조).

<표 III-4> 대학유형별 특성화고 졸업자 진학 비율

구분		연도					5개년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문대 진학자	전체	167,386	159,518	151,405	149,498	144,022	154,366
	특성화고졸	63,568 (38.0)	51,787 (32.5)	42,462 (28.1)	27,625 (18.5)	25,864 (18.0)	42,261 (27.0)
4년제 대학교 진학자	전체	295,584	287,854	288,813	294,582	287,096	290,786
	특성화고졸	32,703 (11.1)	27,660 (9.6)	23,957 (8.3)	11,417 (3.9)	9,719 (3.4)	21,091 (7.6)

단위: 명(%)

주: 1) 고등학교 관련 통계자료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제시 양식이 상이함. 2014년 이전에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구분되어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
 2) 진학자 전체는 2014년 이전의 경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에서 전문대학(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합한 값이고, 2014년 이후의 경우,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에서 전문대학(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합한 값으로 전문대학(대학) 현황의 입학자 수와 상이함.
 3) 5개년 평균의 비율은 각 연도 비율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1~2015).

- 4) 2011년~2015년의 하향취업자 비율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고용정보원(2012)에서 제시된 2007년~2011년의 하향취업비율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하향취업자 비율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2012)의 연구가 하향취업자 비율 또는 수를 제시하고 있는 최신 연구라는 점과 하향취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2011년까지의 하향취업자 비율을 평균을 적용하여 실제 하향취업자 비율보다 낮은 수치로 하향취업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에서 제시된 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하향취업자 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연구에서 제시된 하향취업자 수 이상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잠재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5) 한국고용정보원(2012). 신규인력수급차 전망모형 개선연구.

* 학력별 하향취업자 비율

구분		연도					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문대졸		21.1	26.8	27.8	25.0	28.9	23.9
4년제대졸		12.3	10.6	14.0	14.1	14.5	12.6

주: 1) 전문대졸은 1)고졸취업, 2)적정취업으로 나뉘며, 기입된 비율은 1)의 비율임.
 2) 4년제대졸은 1)고졸취업, 2)전문대졸취업, 3)적정취업으로 나뉘며, 기입된 비율은 1)의 비율임.

그런데 최근 5년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비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진학비율을 당해 연도 졸업자 비율로 사용하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당해 연도 졸업자가 입학한 해를 확인하고, 군대, 교환학생, 휴학 등의 사유로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입학한 해로부터 2년 전부터 입학한 해까지의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표 III-5> 참조).

<표 III-5> 대학유형별 특성화고 진학자 비율(입학년도 고려)

단위: %

구분		졸업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입학년도	2007~2009년	2008~2010년	2009~2011년	2010~2012년	2011~2013년
전문대 진학자	입학년도	2007~2009년	2008~2010년	2009~2011년	2010~2012년	2011~2013년	
	평균	51.4	48.9	44.3	38.8	32.8	
4년제 대학교 진학자	입학년도	2005~2007년	2006~2008년	2007~2009년	2008~2010년	2009~2011년	
	평균	12.4	12.1	12.0	11.8	11.5	

주: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는 다음의 절차로 확인하였음.

- ① 대학 재학기간을 기반으로 해당연도 졸업자의 입학년도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 확인
(예: 2011년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는 2009년, 4년제 대학은 2007년이 이에 해당함)
- ② 군대, 교환학생, 휴학 등의 사유로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입학한 해로부터 2년 전까지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 확인
- ③ ①, ②에서 도출한 3개년도 비율의 평균값 확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5-2015). 교육통계연보. 내용 재구성.

이상의 값을 기반으로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식을 정리하면 [그림 III-3]과 같다.

$$\{(전문대졸 취업자 수 \times 전문대 졸업자의 하향취업률 평균 \times (1-특성화고졸자 중 전문대 진학을 평균))\}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 수 \times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률 평균 \times (1-특성화고졸자 중 4년제 대학 진학을 평균))\}$$

[그림 III-3] 대학교 졸업자의 하향취업자 수식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자 수는 2011년 105,589명, 2012년 105,514명, 2013년 102,621명, 2014년 101,283명, 2015년 97,46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2011년 140,204명, 2012년 144,760명, 2013년 140,155명, 2014년 141,998명, 2015년 147,059명이다. 이를 [그림 III-3]의 수식에 대입하여 하향취업자 수를 산출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를 제외한 대학 졸업자의 하향취업자 수는 2011년 27,740명, 2012년 28,919명, 2013년 29,202명, 2014년 30,594명, 2015년 32,05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III-6> 참조). 즉,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하향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잠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전문대 및 4년제대 하향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전문대	취업자 수	105,589	105,514	102,621	
	하향 취업자 수	25,236	25,218	24,526	24,207	23,295	하향취업률: 23.9%
	잠재수요(a)	12,265	12,886	13,661	14,814	15,654	특성화고 출신자 제외
4년제 대학	취업자 수	140,204	144,760	140,155	141,993	147,059	-
	하향 취업자 수	17,666	18,240	17,660	17,891	18,529	하향취업률: 12.6%
	잠재수요(b)	15,475	16,033	15,540	15,780	16,399	특성화고 출신자 제외
합계(a+b)		27,740	28,919	29,202	30,594	32,053	평균: 29,70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6~2015).

3. 종합적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제적 학생 수요와 잠재적 학생 수요의 합계를 보면 2011년 52,155명, 2012년 55,138명, 2013년 57,406명, 2014년 54,900명, 2015년 61,868명으로 나타나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참조).

〈표 III-7〉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제적 수요	특성화고 탈락자	13,179	14,142	15,160
	진로변경 전입학자	2,246	1,803	1,987	1,522	1,461
	위탁과정 희망자	8,990	10,274	11,057	11,856	13,127
	소계	24,415	26,219	28,204	24,306	29,815
잠재적 수요	전문대	12,265	12,886	13,661	14,814	15,654
	4년제 대학	15,475	16,033	15,540	15,780	16,399
	소계	27,740	28,919	29,202	30,594	32,053
합계		52,155	55,138	57,406	54,900	61,868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를 특성화고 입학 정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학생 수요는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31.7%, 실제적 학생 수요는 29.5%로 나타났다(〈표 III-8〉 참조).

〈표 III-8〉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성화고 입학 정원	118,137	113,541	108,156	105,605	101,102
추가 수요	52,155 (44.1)	55,138 (48.6)	57,406 (53.1)	54,900 (52.0)	61,868 (61.2)
실제적 수요	24,415 (20.7)	26,219 (23.1)	28,204 (26.1)	24,306 (23.0)	29,815 (29.5)
잠재적 수요	27,740 (23.5)	28,919 (25.5)	29,202 (27.0)	30,594 (29.0)	32,053 (31.7)

주: (%)는 특성화고 선발 정원 대비 비율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1~201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방체제로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갖는 추가적인 수요를 실제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 수요에 대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대응방안과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받고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 등 실제적 수요가 2011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0.7%였으나, 2015년에는 2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축소하여 정예화하고 해당학교들을 취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등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원하는 실제적 학생 수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지난 5년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하향 취업하는 취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취업자 중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를 제외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잠재수요는 2011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3.5%였으나, 2015년에는 29.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력 수요에 따라 교육기회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 고용 사이의 불일치 문제는 고학력 인력의 취업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은 인력공급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 충족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인력 수요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신선미·손유미, 2008).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향취업자 수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산업영역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대

학 이상의 고숙련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중등단계 교육체계를 보더라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중등단계 교육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등단계 교육체계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비중을 설정하는 데 인력의 양적 측면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학생의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사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한 방법이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의 유형과 각 유형별 교육내용, 진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학부모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업에서 있어서 학력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체제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진로 경로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진학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후진학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더 낮은 실정이다(브레이크뉴스, 2015).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취업 후에도 필요에 따라 충분히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데이터 수로 인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할 수가 없어,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추가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추가 수요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반고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탈락자와 일반고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자 간의 중복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없었다. 추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하고 축적한다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추가적인 수요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중단연구를 수행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성과 및 한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달성한 성과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1983). **직업교육의 비용-효과/수익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용노동부(2015).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세종: 고용노동부.
- 교육부(2015).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보도자료(2015.9.22.)
- 김주섭(2005).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내일신문 보도자료(2015.03.02.). **‘진로변경 전입학’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
- 류지성·엄동욱·김재원·김동구(2012).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CEO인포메이션, 855. 삼성경제연구소.
- 박윤희·허영준·오계택(2013). 고졸자 채용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32(3): 117-140.
- 박지선·권대식(2005). **과잉학력의 특성, 실태 및 적정학력으로의 이행 분석. 제4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천수(2004). 청소년의 과잉학력 현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취업자를 중심으로.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배상훈·장환영·오세희·장창성·이태희(2013).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직업교육연구**, 32(2): 45-71.
- 브레이크뉴스 보도자료(2015.08.29.). **시·도교육청, ‘선취업 후진학’ 고졸 취업 정책 펼쳐**.
- 송창용·민주홍·성양경(2009).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동향. **The HRD review**, 12(1): 107-131.
- 신선미·손유미(2008).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1): 1-21.
- 오호영(2005).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28(3): 1-37.
- 이무근(2003). **직업교육학 원론**(3판). 서울: 교육과학사.
- 임언·이수정·윤형한·정혜령(2015). **특성화고 보통교과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명희·김종우·민상기(2010).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성과분석, **직업교육연구**, 29(4): 215-235.
- 정운경(2015). 직업과 일에 대한 인식 변화. **KRIVET Issue Brief**, 67호.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이종범(2013).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2(1): 1-21.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12). **신규인력수급차 전망모형 개선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1990-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BSTRACT

An Analysis on Additional Student's Demand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Jin-mo Kim* · Su-jeung Choi* · Jung-soo Nam* · Young-Wook Jeon* · Jin-ju Oh* · Young-Ju Yu* ·
Seon-k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verify additional demand of student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draw political implications. To meet the purposes, firstly we analyzed current policies on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econd, we divided additional demand of student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to practical and potential demand.

Practical demand by students who would like to take further vocational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cludes students who hoped to enter vocational high school however they failed to go, the first or second year students who transferred from general high school to vocational high school, and the third year students who are in general high school would like to take commissioned vocational courses. Potential demand is an additional demand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a society perspective. This includes a student who downgraded employment even though they entered college or university after graduated general high-school. Compa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ith the entrance quota of vocational high-school, additional demand of student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howed that accounted for 61.2 percent of the entrance quota year 2015. Specifically, potential demand accounts for 31.7 percent of the entrance quota for vocational high school and practical demand accounts for 29.5 percent.

Keywords :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dditional student's demand

논문접수일 : 2016년 7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 2016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30일